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9. 1.(화) 총 3매(본문2, 붙임1)	
담당 부서	항공기술과	담당자	• 과장 민풍식, 사무관 원정윤, 주무관 김은혜 • ☎ (044) 201-4284, 4285, 4292	
	서울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	담당자	• 과장 임성국, 주무관 이경철, 권무진 • ☎ (032) 740-2171, 2165, 2174	
보 도 일 시		2020년 9월 2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1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국토부, 유휴 여객기 화물수송 확대 개조작업 승인

- 제작사 개조절차 따라 적합성·안전성 검증...항공사 수익성 개선 기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코로나-19 영향으로 항공여객 수요 회복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국내 항공사*에서 유휴 여객기를 화물 수송 용도로 수리개조를 신청(20.8.20)한 것에 대하여 개조작업(20.8.24~9.1)에 대한 적합성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승인하였다고 밝혔다.

* 대한항공에서 여객기(B777-300ER, 1대)를 화물수송 용도로 개조작업 신청(8.20)

○ 이번 수리개조 승인은 유휴 여객기를 화물 수송에 활용하기 위한 좌석 제거와 객실 바닥에 화물을 탑재토록 변경*하는 수리개조 사항이다.

○ 제작사(보잉사)의 기술검토** 등 안전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감독관(서울지방항공청)이 수리개조 적합성과 안전성을 철저히 검사하여 승인하였다.

* 수리개조 내용 : 객실 좌석 제거(비즈니스 42석, 이코노미 227석), 기내 전기 배선 제거, 객실 바닥 플래카드 장착 등 개조

** 해외사례 : 외국 항공사(브리티시항공, 에어캐나다, 에미레이트항공 등)에서도 제작사 기술검토를 거쳐 여객기를 개조하여 화물을 수송 중에 있음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승인 조치로 수리개조된 여객기 화물 수송 시 약 10.8톤의 추가적인 화물 적재가 가능하여 항공사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,

* (B777-300ER 기준) 기존 : 22톤(하부 화물칸) → 수리개조 후 : 32.8톤

○ 국내 일부 저비용항공사(LCC)에서 여객기 객실 내 화물을 수송하는 계획도 안전운항기준 지침(가이드라인)에 근거하여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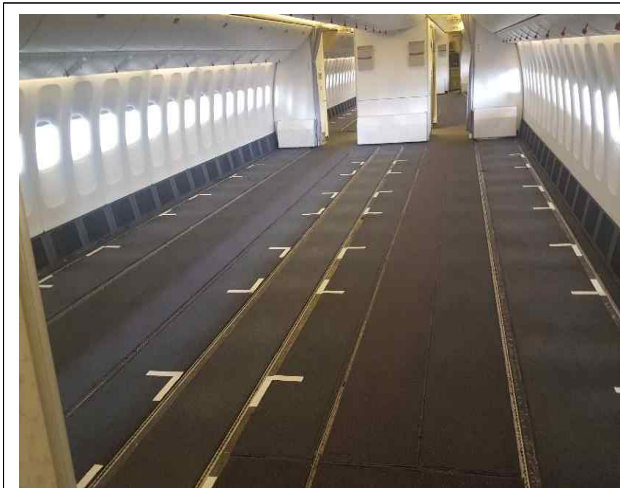
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원정운 사무관(☎ 044-201-428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기내 수리개조 위치

- B777-300ER 항공기 객실 좌석 제거(비즈니스·이코노미 269석), 전기배선 제거, 객실 바닥 플래카드 장착 등 개조



□ 개조 후, 객실 바닥에 화물 적재 예시



객실 내 좌석 등 제거



객실 내 화물 적재 모습(해외사례)